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불거진 미국 쇠고기 파동과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적 방한일정 변경,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경색,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수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이로부터 비롯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선명 사적파동 등이 그것들이다.

그 결과, 출범한 지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는 전락도, 원칙도 그리고 사람도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의 실패는 곧 국력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외교안보라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일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한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역사관계가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에 일어나는 현실적 충돌들은 대부분 역사가 낳은 산물들이다. 또 한·일간에서는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감정과 정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엄청난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역사관계의 중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도 마찬가지로이다. 지금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자국을 방문할 것부터 못 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대



불자 세상보기

정용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實用’ 외교와 ‘失用’ 외교

북정책이라고 하는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지표명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이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중국은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다음은 상대방 국가의 정보나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분쟁지역에서 급격히 개입을 자제하려는 외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 만

에 원상복귀 하는 해프닝이 됐지만 이번 미국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소통’의 문제이다. 소통은 국내정치에서도 필요하지만 외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정치와 외교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국내정치가 어려운데 외교가 잘 될 리 없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좋은 예이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ARF

참가국 대표들에게 금강산 사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던 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사건은 남북문제이므로 남북끼리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혀 부처 간 엇박자를 표출하였다고 한다. 또 외교부는 당초 아쉽지만 10·4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가 뒤늦게 청와대의 강한 반발기류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외교 상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행에 불과할 따름이다.

외교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부터 지역적인 문제들까지 존재해 있다. 지역적인 문제로 여겼던 일이 커지면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리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원유가 인상, 미국의 경기침체, 이러한 것들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였어도 신뢰가 떨어진 대통령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난관을 타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농구경기의 용어인 ‘all court pressing(전면강압수비)’의 자세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도 살리는 길이다.

社說

종교편향 종식은 국력 배가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7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종교편향 사례들과 관련 불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출과 관련 ‘국가 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적 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관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다. 헌법에 이미 종교적 자유는 선언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별법에서 종교편향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필요한 것은 종교편향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의원은 종교편향과 관계된 시정조치와 구제 절차를 국가인권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개정안은 종교편향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의 ‘구제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 제출한 개정안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종교는 새로운 점검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종교 편향이라는 이슈 자체가 한국 종교계의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코드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개별적 인간과 인류의 행복을 가르친다. 세상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종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배타성을 지닌다. 스스로의 교의에 대한 확신을 다른 가치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는 인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인간과 행복인류의 평화를 벗어날 수 없다. 공극은 다르지 않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갈등의 소지는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또 시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정 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하는 쪽으로 합리화 하는 경우엔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종교현실은 과연 어떤가? 정통 가치와 20세기 들어 물질 뜻 들어오고 우후죽순처럼 자생한 종교들이 백화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를 넘어 첨단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데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상호 존중의 미덕 보다는 ‘생존 경쟁’식의 선교와 배타적인 가치 주입이 종교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도적인 편향 사례도 있지만 당사자가 의식하지 않은(혹은 안한 척 하는 가운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은 종교의 궁극 보다는 방법론에 지나치게 경도된 탓이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사례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종교를 이유로 갈등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비를 가리는 본질의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종교편향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그러나 반대로 법규정의 설치가 종교편향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 되고 한국의 종교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된다면 그만큼 풍요롭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절에서 사는 아이

“애야, 내 새끼야.” 송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들렸다. 송씨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갓난아이 때 자신을 절에 데려다 놓고는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산골의 작은 절이었다. 성이 송(가명)이라는 것만 알았다. 스님들은 잘 키우 주었지만 어린 송씨의 마음은 항상 쓸쓸하고 허전하였다.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운 것은 단연 부모님이라는 존재였다. 친구들처럼 한번이라도 ‘엄마, 아빠’하는 말을 해 보고 싶었다. “너는 왜 절에서 사니? 엄마는 어디 있어?”하고 물으면 제일 싫었고 할 말이 없었다.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항상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송씨는 중학교 때부터 도시에 가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다. 스님이 가끔 와서 이것저것 보살펴 주었다. 그래도 혼자 밥해 먹고 사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다. ‘이별 때 부모가 계시다면 투정도 해 보고 힘들다고도 할 텐데.’ 병이 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엄마, 아빠, 나 아파요.’하고 속으로 불러 보며 이별을 뒤집어쓰고 울곤 하였다.

부처님 너무 해오

성실한 송씨는 어른이 되었고, 착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정하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5 부처님의 아이

던 날, 부처님 앞에 가서 서럽게 울었다. 딸이 결혼하는 줄도 모르는 내 부모는 어디 계시는 걸까. 지금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축하해주셨을까. 마음이 저리고 아팠다.

결혼한 후에 송씨가 가장 기대한 것은 자신의 아이였다.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는 꼭숨 걸고 다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했다. 육아책을 잔뜩 사오고, 아기용품 파는 곳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하고 싶어서였다. 장을 보러 가셔도 근처 장난감 가게를 찾아가서 구경하고 왔다. 날마다 “너무 행복해요, 부처님, 감사해요” 하며 다녔다.

그렇게 임신 몇개월인 어느 날, 청청벽벽같은 일이 일어났다.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실

려 간 것이다. 다행히 송씨는 무사했지만 그만 유산을 하게 되었다. 믿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송씨는 자기도 그냥 아기와 같이 죽고만 싶었다.

“단지 죽지 않은 이유는 살아서 꼭 다시 아이를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퇴원한 며칠 후, 절에 갔다. 부처님께 원망하고 싶었다. “부처님, 정말 너무 하세요. 제 인생은 왜 이래야 하나요. 평생 부모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제까지도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난 부처님의 아이

병상에 앉아 송씨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

다. 새삼 자신을 버리고 간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기를 잃은 슬픔에 평평 눈물이 쏟아졌다. 부모도 없고 아기도 없어버린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만 같았다.

몇 시간을 울자 지쳐서 눈물이 아팠다. 불상을 바라보며 “너무해요, 너무해요”하고 말하였다. 그 때였다. “애야, 아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법당 안에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러나 다시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송씨는 그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건 부처님의 음성이었어요. 잘못 들었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그건 저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음성이었어요.” 송씨에게 중요한 건 그 ‘내 새끼’라는 음성엔 온 몸과 마음의 세포까지 다 녹는 것 같은 사랑과 감동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그런 느낌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같이 온 몸을 감싸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날 이후 더 이상 ‘난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없어져버렸다. ‘내 새끼’라는 말, 친부모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송씨는 그 후로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 난 부처님의 아이야’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심대의 1남1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다. 그래도 평생 부처님이 해 주신 그 ‘내 새끼’라는 말을 가슴에 품으며 살 것이라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김국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사 강로매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교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공수
·훈민장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독교대학교 명예교수
·사물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불문인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국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불상,석탑,석등,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식: 활동성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형태도 맑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의산에서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